

페르시아(Persia) 아케메네스(Achaemenes)왕조 시대 머리쓰개에 관한 연구

장 영 수

독일 고고학연구소(비교고고학 분과) 객원 연구원

A Study on Headgears at the Age of the Persian Achaemenes

Dr.-Phil. Youngsoo Yi-Chang

Guest Researcher, 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
(Commission for General and Comparative Archaeology)

(2004. 10. 13. 접수; 2005. 1. 30. 채택)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on various headgear at the age of the Persian Achaemenes are to analyze one cultural aspect of the Achaemenes Kingdom that made a great empire about 5th century B.C. and to understand the ancient Persian cultur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Persian region was an important place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rough the Silk Road and its culture affected China and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ncient culture in this region for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However, research activities have not been satisfactorily conducted.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levate the interest in this subject.

In this study, European archeological materials covering Naqsh-e-Rostam (a tomb of Darius), Apadana stairs, Darius palace in Persepolis, and Bistun(Behistun), the relief at the age of the Achaemenes Kingdom,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or crowns at the age of the Achaemenes Kingdom, two kinds of shapes are observed; Mitra, a kind of headband, in the early period and a cylindrical one in the later period. Mitra was also worn by chiefs trusted by the king. Further, slightly different styles of cylindrical crowns were observed, which is considered that kings might wear unique crowns to symbolize new period of their reign. In addition to crowns, various styles of headgear for subjects are observed, meaning that tribes conquered by the Persian empire used their unique headgear. Further, such different styles of headgear might be a tool for social classification. Representative styles of headgear include the semicircular one worn by the Median nobles, Strophion originated from the Elam's headband, and nomadic tribes' Baschlik observed in the Median relics.

Key Words: Achaemenes(아케메네스왕조), headgea(머리쓰개), mitra(왕관), strophion(꼬인 머리띠), baschlik(유목민 모자)

I. 서론

기원전 4-5세기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Achaemenes)왕조는 소아시아와 인도 동북부까지 점령하여 강대한 페르시아(Persia)제국을 형성하였다. 아케메네스(Achaemenes)왕조는 페르시아(Persia)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주변 종족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이 시대 페르시아(Persia) 문화 전반에는 소아시아의 영향이 나타난다. 메디아(Media)왕국의 주변국이었던 페르시아는 키루스(Kyrus)왕 때 메디아(Media)왕국을 넘어뜨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당시 그들은 주변국 이었던 메디아(Media)왕국이나 엘람(Elam)왕국의 체제와 문화를 대부분 흡수하여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토대로 삼았다. 즉 메디아(Media)왕국의 법률 체제나 궁중의 의식, 예식 등을 페르시아제국의 모델로 삼았으며 또한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 아직 그들의 고유언어가 없었을 때 엘람(Elam)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문을 새기기도 했었다²⁾. 페르시아 대제국은 다리우스(Darius)왕 시대에 그 절정기를 이루었는데 이때는 초기에 흡수했던 주변의 문화들이 이미 페르시아화 되어져 그 완숙함을 보이고 있었다. 복식에 있어서는 원래 엘람(Elam)인의 옷이었던 주름 잡힌 긴 드레스가 페르시아(Persia)인들에게 계속 애호되어져 다리우스(Darius)왕 시대에는 이를 페르시아드레스(Persiandress)³⁾로 명명하게 되었고 페르시아(Persia)인의 민속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옷에 비해 머리쓰개는 좀 더 종족적인 특색을 띠는 것으로서 페르시아(Persia)에 흡수되어 이미 페르시아화 되어져 페르시아드레스(Persiandress)를 입었던 종족들도 머리쓰개로는 각기 자기 종족의 특색 있는 머리쓰개를 썼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에서 머리쓰개는 사회의 계급, 신분, 성별, 종족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산물로서 고대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대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왕조의 다양한 머리쓰개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

해 우리는 그 사회를 형성했던 구성원들의 신분과 계급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사회를 이루었던 서로 다른 종족들의 혈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의 다양한 머리쓰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그 뒤 고대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고대 문명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파르티아(Parthia) 제국과 사산조(Sassanian)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왕조로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문화는 많은 부분이 두 왕조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에서 파르티아(Parthia)왕국과 사산조(Sassanian) 페르시아의 영향이 우리나라 미술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그 초석을 다지려한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는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의 부조상인 비스툰(Bistun, Behistun)과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남아있는 다리우스(Darius)왕의 궁전, 아파다나(Apadana)계단, 또 다리우스(Darius)왕의 무덤인 나퀴로스탐(Naqsh-e-Rostam) 등에서 페르시아 사회를 구성했던 페르시아인에 그 범위를 한정했고 또한 이방종족이라도 페르시아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였다. 위의 유적들 중에서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아파다나(Apadana) 계단 조공도에 묘사되어 있는 이방종족들의 머리쓰개는 이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또 다른 체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서 답사를 통하여 실증론적 방법론으로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야는 한국에서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므로 연구의 바탕으로 유럽의 고고학자와 미술사가 또 복식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전문용어의 번역이었다. 전문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예: 전문용어가 영어, 독일어가 서로 다름) 학계에서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 용어를 먼저 사용하였고 그 의미에 맞추어 번역하였으나 아직 학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전문용어가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 Yi-Chang

Tel. +82-11-9894-5872, Fax. +82-31-400-5139

E-mail : chang8589@hanmail.net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형태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II.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역사적 배경

페르시아 인은 셈족이 아닌 인도-유럽어 족⁴⁾에 속하는 민족으로 기원전 6세기 전 까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선조들이 지금의 아랄해(Aralsee)와 카스피해(Kaspisches Meer) 근처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강했고 인내하며 만족할 줄 알았으며, 궁지가 강했고 진리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고 전한다. 기원전 559년 남부 페르시아의 한 부족의 왕이었던 키루스(Kyrus) 왕이 등장하여 세력을 키우며 페르시아 전체의 지배자가 되어 아케메네스 왕조가 시작되었다. 기원전 554년 키루스(Kyrus) 왕은 형제국인 메디아 국을 지배하였고 기원전 539년에는 그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바빌론(Babylon)을 점령하여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대제국으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529년 키루스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캄비세스(Kambyses)가 왕위에 올라 이집트를 정복하며 페르시아 대제국의 기반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왕위에 오른 지 8년 후인 기원전 522년 요절했다. 그 후 캄비세스의 조카 다리우스(Darius)왕이 즉위하여 이집트 정복을 계속하였고 인도 남동쪽 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명실공히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대제국을 완성하였다. 다리우스(Darius, Darius I.)왕은 기원전 522년부터 486년 까지 페르시아를 지배하였는데 초기에는 대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국가 행정조직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통화와 도량형을 표준화하였다. 아케메네스 조의 페르시아는 각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관용정책을 피면서 수도 페르세폴리스(Persepolis)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병행하며 대제국을 다스렸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정치 문화 건축 예술 등 각 방면에 대제국의 피정복민들을 많이 동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들의 영향은 특히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나 수사(Susa), 파사르가대(Pasargarde)등에 지어졌던 거대한 궁전 양식에서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는 그 궁터에서는 그 시대의 웅장함과 품위를 느껴 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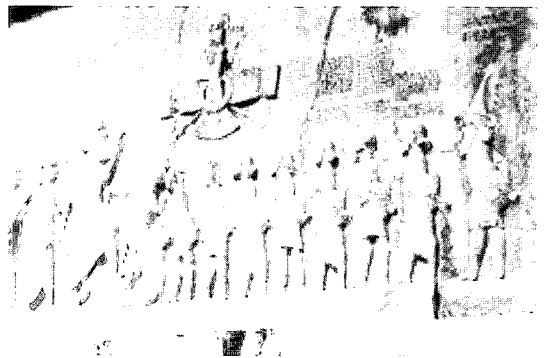
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동방 원정을 단행했던 그리스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에게 멸망당했다⁵⁾.

III.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머리쓰개의 종류 및 유형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머리쓰개는 일반적으로 신분과 계급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페르시아 사회를 구성했으나 혈통이 달랐던 주변 종족들은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그 종족의 머리쓰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왕관과 그의 신하, 귀족과 서민들의 머리쓰개를 그 형태와 착용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톱니 장식이 있는 머리띠 형의 관

기원전 521년 다리우스왕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비스툰(Bistun)⁶⁾ <그림1>에 있는 바위에 기념부조를 만들었고 엘람어⁷⁾로 보고서를 새겨 넣었는데, 이 부조상에서 다리우스왕은 머리띠 형의 왕관을 착용하고 있다. 다리우스 왕은 한 발로 악귀인 과우마타(Gaumata)의 가슴을 밟고 서 있고, 왕 뒤에는 왕을 도와 준 병사들이 각각 활과 창을 들고 서 있다. 다리우스 왕



<그림1> 비스툰(Bistun). Koch H. (1992), 그림5

앞에는 9명의 포로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일렬로 서 있으며, 앞에 있는 사람부터 끝에서 있는 사람까지 목에 줄이 묶여 연결되어 있다. 이 포로들 위에는 아후라 마즈다(Ahura-Mazda)신이 부조되어 있다⁸⁾. 중심인물로 제일 크게 부조되어 있는 다리우스왕은 페르시아인 드레스(Persiandress)⁹⁾를 입고 둥근 머리띠 형의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 위는 열려 있어 머리카락이 관 위로 보이며¹⁰⁾ 머리띠 옆면에는 앗시리아(Assyria)의 장식 motif인 장미꽃 문양¹¹⁾이 새겨져있고 관 위에는 톱니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다¹²⁾<그림 1-3>. 이 관은 아케메네스(Achaemenes)왕조 초기의 부조상인 비스툼에만 묘사되어있고 그 후에는 관찰되지 않아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에만 사용되어진 관으로 생각 된다¹³⁾. 또 왕 뒤에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두 호위병들도 왕이 쓴 것과 같은 머리띠 형의 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관의 높이는 약 6cm이고¹⁴⁾ 옆면에는 다리우스왕의 왕관에서처럼 장미꽃 문양이 새겨져 있으나 왕관 위에 붙어있는 톱니모양의 장식은 보이지 않아<그림 2> 이 톱니 모양의 장식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¹⁵⁾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2> 비스툼(Bistun)에 묘사된 왕의 호위병의 머리쓰개. v. Gall, H. (1992). Taf. 71-1

2. 티아라(Tiara) - 실린더모양의 관

실린더모양의 관은 왕과 일반 귀족의 머리쓰개로 아케메네스(Achaemenes)시대 유적 중 다리우스(Darius)왕과 그의 아들 크세르세스(Xerxes)왕 또 다리우스왕의 손자 아르타크세르세스(Artaxerxes)왕의 부조상과 또 페르시아의 일반 귀족들의 부조상에서 관찰된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머리쓰개를 티아라(Tiara)¹⁶⁾라고 했는데 이 관은, 옆면은 일반적으로 아무 무늬도 없이 반들반들하고 높이가 약 14cm 정도로 약간 높은 실린더 모양이며¹⁷⁾, 관의 위는 덮여있지 않고 열려있었을 것이라는 주장¹⁸⁾과 아마도 덮여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¹⁹⁾이 대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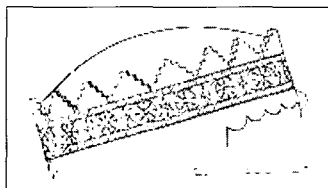
왕과 왕자가 착용한 이런 머리쓰개의 대표적인 예는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아파다나(Apadana) 계단에 부조된 왕의 알현도<그림3>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중앙에 앉아 있는 다리우스 왕과 그 뒤에서 있는 왕자는 머리쓰개 위가 평평하고 톱니모양의 장식이 없는²⁰⁾ 실린더 모양의 관을 착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리우스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은 높이가 약 25 cm²¹⁾ 정도로 보통 14cm 높이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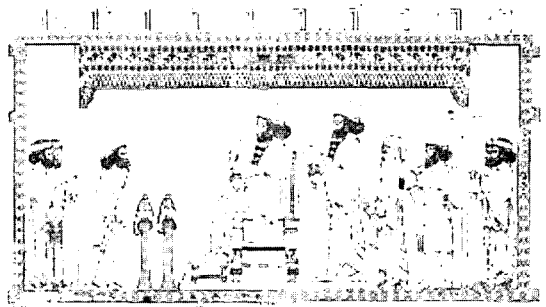
<그림1-1> 비스툼(Bistun)에 묘사된 다리우스 왕의 상제도. H. Koch (1972). 그림6



<그림1-2> 앗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 (Ashurbanipal)왕의 수염과 모자의 형태. 니네베(Nineveh). Ferrier, R. W. (1989). 그림11



<그림1-3> 장미꽃 문양과 톱니 장식이 있는 둥근 머리띠 형의 다리우스왕 왕관 Henkelman, W. 그림1



<그림3>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아파다나(Apadana) 계단 알현도. Ann Britt Tilia, 그림3²⁾

린더 모양의 관 보다 약 10cm 가량 높다고 한다. 이 높은 왕관을 키다리스(Kidaris, Kitaris, cidaris)라고 했는데 이는 보통 황제들만 쓰는 왕관이었다²²⁾.

이 키다리스(Kidaris)는 다리우스왕의 무덤인 나퀘 로스탐(Naqsh-e Rostam)의 부조상<그림4>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다리우스왕은 명실공히 높은 관을 썼던 황제로서 군림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황제는 약간 높은 관을 착용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왕관의 높이와 왕의 권위는 비례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다리우스왕은 높이뿐 아니라 옆면에 변형이 있었던 왕관도 착용했었는데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있는 다리우스왕의 개인 궁전에서 관찰되는 왕관은 옆면에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장식되어 있고²⁴⁾ 왕관 위에는 톱니모양의 장식이 붙어있다<그림5>. 이 옆면에 변형이 있는 왕관은 오직 다리우스 왕관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이고 이에 비해 다리우스왕관에서 관찰되어진 톱니장식과 높이의 변형등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그림4> 다리우스왕의 실린더 모양의 왕관. 다리우스 왕의 무덤. 나퀘 로스탐(Naqsh-e Rostam). Hinz, W. (1969). Taf. 34²⁹⁾



<그림5> 다리우스(Darius)왕의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 실린더 모양의 왕관. Koch, H. (1992), p.130. 그림89



<그림6> 아르타크세르세스(Artaxerxes)왕의 실린더 모양 왕관. Koch, H. (1992), p.225. Abb. 164



<그림7> 페르시아 귀족이 착용한 티아라(Tiara).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동쪽계단 조공도. Hinz, W. (1969). Taf. 30



<그림5-1> 상세도. v. Gall, H. (1974). Taf. 그림33-1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있는 백 개의 기둥이 있는 홀(Huntertsaeulensaal)에서는 크세르세스(Xerxes)왕의 아들 아르타크세르세스(Artaxerxes)왕의 왕관이 관찰되는데 이는 아버지 크세르세스(Xerxes)왕의 왕관보다 약간 높고 다리우스 왕이 착용했던 키다리스 보다는 낮으며 왕관 위에 넓은 테두리가 둘러진 형태로²⁵⁾ 왕관 위에는 톱니모양의 장식이 있다고²⁶⁾<그림6> 하나 그림에서는 확실히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세 왕들은 -다리우스(Darius), 크세르세스(Xerxes), 아르타크세르세스(Artaxerxes) - 기본 왕관인 실린더 모양의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된 것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왕의 개인적인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²⁷⁾.

이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는 왕 뿐 아니라 서열이 높은 페르시아인, 즉 궁중에서 지도자적인 귀족들도 착용했는데 귀족이 착용한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는 옆면에 아무 무늬도 없고 반들반들한 것으로 외관은 왕관과 비슷하나 높이가 14cm 정도로 황제의 왕관과는 구별 된다²⁸⁾<그림7>.

3. 미트라(Mitra)-둥근 고리형의 관

미트라는 위에서 살펴본 머리띠 형의 왕관과 비슷하게 둥근 고리 모양이고 옆면은 아무 무늬없이 민땃한 형태이며 위로는 머리가 노출되어 있다. 높이는 약 7cm 정도로서³⁰⁾ 실린더 모양의 왕관 높이의 반 정도이고 또 장미꽃 무늬가 있는 관 보다는

약간 높은 형태로 이를 그리스어로 미트라(Mitra)라고 했다. 한편 독일의 고고학자 후베르투스 폰 갈(Hubertus von Gall)은, “이 둥근 고리 형의 관은 페르시아 종족 중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는 왕족들이 썼던 관”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왕 측근에 묘사되어진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나 왕의 시중을 드는 왕의 하인들 즉 향로를 들거나, 양산을 들거나, 기름통을 들고 서 있는 하인들을 가리킨다고 했다³¹⁾. 여기에서 우리는 위의 비스톤 부조 상에서 설명한 다리우스 왕 뒤에 서있는 두 신하의 머리쓰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화살을 들고 왕을 호위하기위해 왕 바로 뒤에 서 있는 호위병으로 후베르투스의 설명에 따르면 왕 바로 뒤에 설 수 있게 허락된,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는 왕족들로 이들이 착용한 머리띠 형의 관은 미트라 이어야하나 이들은 미트라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트라 보다는 약간 낮고 가는 형태의 관에 옆면에는 장미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 머리쓰개를 착용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왕에서 절대 신임을 받아 왕 바로 뒤에 설 수 있도록 허락된 종족들에게서 두 형태의 서로 다른 모양의 머리쓰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두 머리쓰개의 기본형은 둥근 고리형으로 거의 같은 모습이나 관의 높낮이와 옆면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 이는 비스톤에서 관찰된 옆면에 장미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 머리쓰개가 후에 옆면에 문양이 없는 미트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 된다³²⁾.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비스톤은 다리우스 황제 초창기의 작품으로 아시리아의 영향³³⁾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이는 다리우스왕조 초창기에 왕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주변의 성숙한 문화를 받아들여 만들었던 작품의 특징이고 실제로 왕조가 성숙한 시기에는 이런 영향은 관찰되지 않으며 페르시아 대제국의 주체와 그 고유의 형태를 만들어 나간 듯하다.

이 미트라를 쓴 종족들은 위에서 살펴본 티아라를 쓴 귀족들 보다는 서열이 낮고 뒤에서 설명할 흠이 파진 실린더 모양의 높은 관이나, 꼬인 머리띠를 썼던 계층 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종족이었다³⁴⁾. 또 실제로 이들은 같은 종족이지만 후베르투스의 설명대로 왕 측근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었는데 이는 페르시아 여러 유적에서 증명되고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알현도<그림3>에서는 천개(Baldachin) 밖 양 옆에 긴 창을 들고 서 있는 호위병들이 미트라를 쓰고 있으며 또한 페르제 폴리스 유적 중에서는 왕 바로 뒤에서 호위하는 근위병들<그림8>과 왕 바로 뒤에서 시중드는 왕의 하인들<그림9>도 미트라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왕 바로 뒤에 서 있는 왕의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버들가지를 꼬아 만든 사람 키 정도 되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서열에 따라 방패의 모양도 달라졌다³⁵⁾.



<그림8> 무늬 없는 둥근 고리 모양의 관.
v. Gall, H. (1972). 그림70-1



<그림9> 무늬 없는 둥근 고리 모양의 관-기름통과 수건을 들고 서 있는 왕의 하인.
Ghirshman, R. 그림243



<그림9-1> 상세도.
Thomson, G., p.124

4. 세로 줄 무늬가 있는 실린더 모양의 관 (Blattkrone)

머리쓰개 모양은 실린더 모양이나 길고 가는 얇은 판을 잇대어 만든 것 같은 형태로 머리쓰개 옆면에 세로 줄 무늬가 있다. 이는 뾰족한 펠트로 만든 관으로 관 위는 아마도 막혀 있는 듯하고 그 높이는 약 14 cm에서 18 cm 정도이나 신분에 따라 관 높이에 차이가 있었다³⁶⁾. 이 머리쓰개는 페르시아 근위병들에게서 관찰되는데 아파다나(Apadana) 계단의 근위병 행렬 부조 상에서 페르시아 근위병들이<그림10> 이 머리쓰개와 페르시아 드레스(Persidress)를 착용하고 오른손에는 긴 창을, 왼손에는 타원형의 방패를 들고 서 있다. 이들은 서열이 두 번째였던 종족³⁷⁾으로 왕 측근에는 설 수 없었고³⁸⁾ 항상 등근 고리 형의 관-미트라(Mitra)를 착용한 그룹 다음에 묘사되어졌다³⁹⁾. 이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앞에서 살펴본 페르시아 근위병 중 서열이 첫 번째인 그룹이 들고 있는 방패와는 다른 모양으로 양 옆이 반원을 그리며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형태인데 그리스에서 전해졌다고 한다⁴⁰⁾. 이로써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방패도 모자와 마찬가지로 그룹의 서열을 구분하는 물건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관은 페르시아 근위병뿐 아니라 귀족들도 착용했었는데 귀족들이 착용했던 머리쓰개는 일반적으로 근위병들의 것 보다 높은 형태이며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Apadana) 동쪽 계단 북쪽 부

분에 메디아인들과 번갈아 가며 나란히 부조되어 있는 부조 상에서 관찰된다⁴¹⁾<그림11>.



<그림11> 페르시아 귀족들이 착용한 흠이 파진 높은 관. Hinz, W. (1969). Taf. 33

여기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귀족들은 두 종류의 머리쓰개를 착용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살펴본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인 티아라(Tiara)<그림7>로 옆면이 민땃하고 아무 무늬없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옆면에 세로 줄 무늬가 있는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이다. 그러면 페르시아 귀족들은 언제 어떻게 머리쓰개를 구분하여 착용했을까? 발터 힌즈(W. Hinz)는 그의 저서 "Alt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에서 페르시아 귀족들이 궁중복에 맞추어 착용하는 머리쓰개의 특징은 표면이 민땃하고 반들반들하다고⁴²⁾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페르시아 귀족들은 궁중복에는 표면이 민땃하고 반들반들한 머리쓰개인 티아라(Tiara)를 착용하고 평상복 혹은 전장복에는 옆면에 세로 줄 무늬가 있는 실린더 모양의 관을 착용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5. 스트로피온(Strophion) -꼬인 머리띠

위에서 살펴본 관 대신 간단한 머리띠 형태의 머리쓰개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근위병들에게서 관찰되는데, 이들은 페르시아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굵은 밧줄을 꼬은 것 같은 꼬인 머리띠를 하고 양손으로 긴 창을 들고 서 있다⁴³⁾<그림12>. 이 꼬인 머리띠를 그리스어로 스트로피온(Strophion)⁴⁴⁾이라고 한다. 이들은 위에서 살펴본 흠이 파진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를 쓴 두 번째



<그림10> 실린더 모양에 흠이 파진 관. v. Gall, H. (1972). Taf. 70-2



<그림10-1> 상세도. Ghirshman, R. (1964), p.191. 그림238



〈그림12〉 꼬인 머리띠를 한 페르시아 근위병. 아파다나 동쪽계단 Gerold Walsler (1980). Taf. 104



〈그림12-1〉 꼬인 머리띠. 상세도. v. Gall, H. (1972). Taf. 72-4

그림 다음으로 서열이 세 번째이다⁴⁵⁾. 이 군인들은 긴 창만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데 방패는 서열이 높은 그룹, 즉 위에서 살펴 본 서열 1, 2 위 그룹들만 들 수 있었던 전유물 이었던 것 같다.

이 머리띠는 원래 엘람(Elam)인들의 민속적인 것으로 엘람인 들은 신분에 따라 두 종류의 머리띠를 착용했었는데 엘람의 군인들이 착용한 꼬인 머리띠와 엘람의 보통 시민들이 착용한 꼬이지 않은 머리띠로 이는 머리 뒤 중앙에서 묶여진 형태이고 위에서 언급한 둥근 고리 형의 머리쓰개인, 미트라(Mitra)보다는 좁은 형태이다⁴⁶⁾.

이 꼬이지 않은 머리띠를 한 엘람인 들이 앓시리아의 부조품⁴⁷⁾〈그림13〉과 페르제폴리스 아파다나 계단의 조공도 중 공물을 바치는 엘람인 들⁴⁸⁾〈그



〈그림13〉 꼬이지 않은 머리띠를 착용한 엘람인. Calmeyer, P. (1988). Taf. 12



〈그림14〉 아파다나 계단의 조공도에서 꼬이지 않은 머리띠를 착용한 엘람인. 상세도. v. Gall, H. (1972). Taf. 72-3

림14〉에게서 관찰되어 우리는 꼬이지 않은 머리띠를 착용했던 엘람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과는 달리 꼬인 머리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엘람의 군인과 페르시아 근위병들에게서 관찰되는데 이는 엘람의 영향으로 페르시아는 왕조 초창기에 엘람으로 부터 엘람어와 페르시아드레스(Persiandress)⁴⁹⁾, 꼬인 머리띠를 받아들여 사용했다.

6. 반원형의 모자

반원형의 모자는 원래 메디아(Media)의 귀족들만 쓰던 머리쓰개로 머리 윗부분은 둥근 반원형의 형태이고 머리쓰개 뒤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끈이 두 개 달려있다. 이는 두 끈이 서로 묶여져 매달려 있거나 혹은 단추 또는 고리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조 상에서는 끈이 하나로만 표시되어 있다〈그림15〉⁵⁰⁾. 아케메네스 왕조의 여러 부조 상에서 반원형의 모자는 메디아인의 복장인 바지 저고리를 착용한 부조 상에서 관찰되고 있어 메디아인의 머리쓰개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파다나 계단 알현도〈그림3〉로 여기에서 상체를 왕 쪽으로 약간 구부리고 왕에게 무엇인가 알리려는듯 한 손을 입에 대고 서 있는 왕의 의전단 파르나카(Farnaka)⁵¹⁾는 메디아인의 복장인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반원형의 머리쓰개를 쓰고 있다.



〈그림15〉 반원형의 모자. Gerold Walsler (1980). Abb. 47



〈그림15-1〉 상세도. Koch, H. (1993), p.119. Abb. 1

7. 바실릭(Baschlyq, Baschlik)

바실릭(Baschlik)은 아케메네스 왕조 부조 상에서 주로 하인들에게서 관찰되는 머리쓰개로 위의 알현도<그림3>에서 왕자 뒤에 서서 시중드는 하인이 착용하고 있는 머리쓰개가 바실릭(Baschlik)이다. 이는 머리를 완전히 덮고 옆으로는 귀를 덮는 귀 덮개가 모자의 머리 부분에서 내려와 얼굴 일부분을 가리고, 턱 밑을 덮어 가리는 형태이다⁵²⁾<그림16>. 이는 원래 유목민족 특히 이란계 기마민족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머리쓰개로 초원이나 사막에서 말을 탈 때 머리와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한 머리쓰개였다⁵³⁾.

위의 알현도에서 바실릭(Baschlik)을 착용하고 있는 하인은 원래 이란계 유목민족인 마르더(Marder)족으로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이미 상당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종족으로 페르시아화 되어져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나 머리쓰개는 그 종족의 유래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 고유의

머리쓰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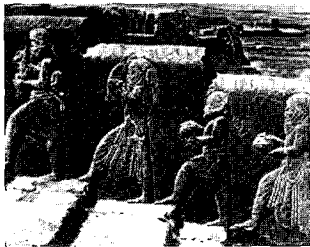
알현도 외에 다리우스 황제 궁전 계단에 부조된 부조 상에서는 바실릭이 특히 음식과 관계되는 궁중하인들에게서 관찰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인들이 모두 입을 가려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⁵⁵⁾<그림17>. 여기에서 우리는 원래 유목민의 머리쓰개로 자연에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머리쓰개가 정착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맞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실릭의에 형태가 약간 변화된 바실릭이 다리우스 황제 궁전 계단 부조에서 관찰되는데 양을 들고 서 있는 하인이 착용한 바실릭은 위에서 살펴본 메디아인의 반원형의 모자에 귀와 입 가리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다<그림18>. 이 형태는 메디아인이 썼던 바실릭으로⁵⁶⁾ 위 알현도에서 페르시아의 유목민이었던 마르더종족이 착용했던 바실릭과는 그 형태에서 구별된다. 또한 이 바실릭을 쓴 메디아인은 위에서 설명한 반원형의 모자를 착용했던 메디아 인보다는 서열이 이 낮은 그룹이었다⁵⁷⁾. 메디아인들이 착용했던 바실릭에는 머리쓰개 윗부분이 둥근 반원형이 아니고 세 부분으로 갈라져 변형된 모습도 페르세폴리스 크세르세스 궁전의 하인 부조 상에서 관찰되고 있다<그림19>. 메디아인의 바실릭은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가죽이나 펠트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귀와 입 가리개는 머리 부분에 따로 붙여진 것이 아니고 아마도 머리 부분과 같이 한 조각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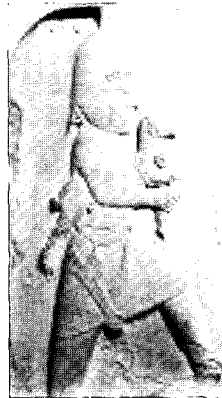
<그림16> 바실릭(Baschlik)
Koch, H. (1992).
Abb.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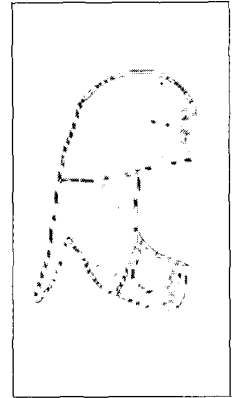
<그림16-1> 상세도. Koch,
H. (1993) p.132, Abb. IV



<그림17> 바실릭(Baschlik)을 쓰고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
페르세폴리스 크세르세스 궁 서쪽계단.
Girshman, R. (1964). Taf.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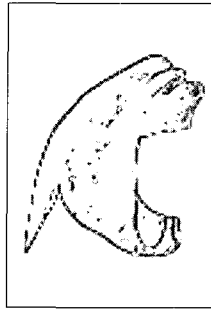
<그림18> 메디아 하인이
착용한 바실릭.
Koch, H. (1992),
Taf. 28



<그림18-1> 상세도.
Koch, H. (1993), p.132.
Abb. I



〈그림19〉 메디아 하인이 착용한 바실릭. 페르제폴리스 크세르세스 궁전. Gall, H. v. Taf. 73-4



〈그림19-1〉 상세도, Koch, H. (1993), p.133. Abb. 11

다⁵⁸⁾. 반면에 위 알현도의 바실릭은 천을 둘러 감싼 형태로 만들어져 유연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⁵⁹⁾. 여기에서 우리는 바실릭의 여러 형태를 관찰해 보았는데 종족에 따라 바실릭의 모양은 달라지고 있었다.

IV. 결과 및 논의

이 논고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의 머리쓰개를 연구 분석한 것으로 기원전 5세기 때 대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문화의 한 단면을 관찰하여 고대 페르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페르시아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올바른 고대 문화연구에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왕관과 그의 신하 또 서민들의 머리쓰개를 그 형태와 착용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페르시아의 머리쓰개는 신분과 서열에 의해 그 형태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서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계급사회로 세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왕의 머리쓰개로는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에만 착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머리띠 모양의 머리쓰개와 보다 후에 착용하였으며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인 티아라가 있었다. 티아라는 왕 뿐 아니라 궁중의 지도자적인 귀족들도 사용했다. 또한 페르시아 귀족들은 흠이 파진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도 착용하였는데 이 두 머리쓰개는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

하였으며 궁중에서는 티아라와 둥근 고리모양의 머리쓰개인-미트라(Mitra)를 착용했었다. 둥근 고리모양의 머리쓰개인-미트라(Mitra)는 티아라(Tiara)의 반 정도 되는 높이의 머리쓰개로 주로 왕의 호위병과 하인들이 착용하였는데 이들은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서열 첫번째의 왕족으로 항상 왕의 측근에 설 수 있도록 허락된 그룹이었다. 페르시아 근위병들은 옆면에 세로 줄이 있는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와 꼬인 머리띠인 스트로피온을 서열에 따라 착용했던 머리쓰개가 달랐기 때문에 옆면에 세로 줄이 있는 실린더 모양의 머리쓰개를 쓴 그룹이 서열이 높았고 그 다음 서열의 그룹이 꼬인 머리띠를 했다. 꼬인 머리띠인 스트로피온은 엘람의 영향으로 엘람의 군인들이 착용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착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 주변 종족들이 착용했던 머리쓰개를 그대로 착용한 경우는 메디아인의 반원형의 머리쓰개가 있었다. 또 원래 이란계 유목민족의 머리쓰개였던 바실릭(Baschlik)이 있었는데 이 머리쓰개는 아케메네스 궁중에서는 하인들, 특히 음식물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했던 하인들이 착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페르시아 근위병들의 꼬인 머리띠에 대한 서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참고문헌 43), 물론 이 부분의 연구는 더욱 확실하고 체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그 곳을 직접 답사하여 연구한 유럽 학자들이 이 머리쓰개를 꼬인 머리띠로 보고 있는 의견과는 달리 이 꼬인 머리띠를 둥근모자로 보고 있는 부르세의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부르세의 견해가 국내 학계에서 이견없이 받아들여 졌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즉 우리의 연구가 한 언어권(영어권)의 참고문헌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는 참고문헌의 진위를 가리지도 못하며 우리의 연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1) Hinz, W. (1969). *Alt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 고대 이란의 발굴품과 그 연구. Walterde Gruyter & Co. Berlin,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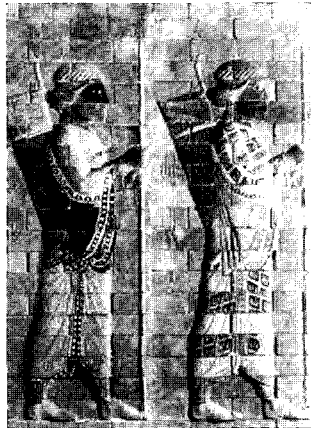
- 2) Luschey, H. (1968). Studien zu dem Dariusrelief vom Bisutun, in *AMI(Archs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Neue Folge(NF) Band 1.* Dietrich Reimer Verlag Berlin, pp.63-94.
- 3) 페르시아드레스(Persiandres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영수 (2003). -페르시아 복식 중 캔디스(Kandys)와 페르시아드레스(Persiandress)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7(2), pp.15-25.
- 4) 이 언어에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근대 유럽의 대부분의 언어가 포함됨; Burns, E. M., Lerner, R. & Meacham, S., 박상익 옮김 (1994). *서양 문명의 역사*. 소나무, p.73.
- 5) Schmoeckel, R. (1982). *Die Hirten. die die Welt veraenderten.* Verlag Rowohlt. Hamburg, pp.311-320; Koch, H. (1992).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다리우스 왕이 이르기틀.....Mainz/Rhein: philip von Zabern, pp.7-11; Burns, E. M., Lerner, R. & Meacham, S. Ibid., pp.73-76; Gombrich, E. H., 이내금 옮김 (1997). *세계사*. 자작나무, pp.96-98; 오가와 히데오 감수, 고선윤 옮김 (2002). *고대문명*. 서울문화사, pp.66-67.
- 6) 중세 페르시아어로는 Behistan, 현대 페르시아어로는 Bisotun. 원래, 신들의 장소(Ort der Goetter)를 의미하는 Bagastana에서 유래했고, 이곳은 메디아 왕국에서 바빌론으로 가는 길 위에 위치하여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 Koch, H. Ibid., p.14; Henkelman, W. (1995-1996). The Royal Achemenid Crown. *AMI Band 28*, p.275.
- 7) Hinz, W. (1969). Op. cit., pp.68.
- 8) Koch, H. (1992). Op. cit., pp.14-15; Henkelman, W. (1995-1996). Op. cit., pp.275-276.
- 9) 이 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영수 (2003).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아파다나계단 알현도에 묘사된 복식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5(1), pp.1-11.
- 10) Hinz, W. (1969). Op. cit., p.76.
- 11) Calmeyer, P. (1976).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IV. Persoenliche Krone und Diadem. 고대 이란의 주제 생성에 대한 연구 4. 개인의 왕관과 머리띠. *AMINF Band 9*. Berlin, p.54.
- 12) Henkelman, W. (1995-1996). Op. cit., p.276; Koch, H. (1992). Op. cit., p.223.
- 13) 비스툼은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의 작품으로 앗시리아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다리우스 왕의 머리와 수염의 형태는 니네베(Nineveh) 부조 상 중 앗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왕의 형태<그림 1-2>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Ferrier, R. W. (1989). *The Arts of Persia*. Yale University. New Heaven & London, p.35; 또한 독일의 고고학자 후베르투스 폰 갈은, 귀를 내놓고 착용하는 왕관의 착용방법은 앗시리아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von Gall, Hubertus (1974). Die Kopfbedeckung des Persischen Oranats bei den Achaemeniden. in *AMI N.F. Band 7*, p.160.
- 14) Hinz, W. (1969). Op. cit., p.76.
- 15) Henkelman, W. (1995-1996). Op. cit., p.276.
- 16) 티아라(Tiara)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고전에서 는 페르시아 왕이 쓴 왕관과 일반 페르시아 사람들이 쓴 머리쓰개를 총칭하는 말이었으나 <RE(Paulys Real-Encyclopae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1974). Supple. (Supplementbaende). 14. Tiara, pp.786-796); Thomson, G. (1965). Iranian Dress in the Achaemenian Period. in *Iran. London Vol. III*, p.125; > 아직도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고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Hinz, W. (1969). Op. cit., p.76; Ritter, Hans-Werner (1965). *Diadem und Koenigsherrschaft*, C. H. Beck Verlagsbuchhandlung, Muenchen und Berlin, pp.6-8; v. Gall, H. (1974). Op. cit., pp.146-147; Bittner, S. (1985). *Tracht und Bewaffnung des persischen Heeres zur Zeit der Achaemeniden*. 아케메네스 시대 페르시아 지배자들의 복식과 무기. Muenchen; Verlag Klaus Friedrich, pp.197-198.).
- 17) Hinz, W. (1969). Op. cit., p.76.
- 18) v. Gall, H. (1974). Op. cit.
- 19) Hinz, W. (1969). Op. cit., p.76.
- 20) v. Gall, H. (1972). Persische und medische

- Staemme. 페르시아와 미디어 종족들. *AMI NF Bd. 5*. Berlin, p.268; Henkelman, W. (1995-1996). Op. cit., p.276.
- 21) RE Suppl. 14 (1974). s. v. Tiara, p.795.
- 22) Hinz, W. (1969). Op. cit., p.78; Ritter, Hans-Werner (1965). Op. cit., p.8; Anmerkung 1: v. Gall, H. (1974). Op. cit., p.146; Calmeyer, P. (1976). Op. cit., p.5; Bruno, Jacob (1994). *Drei Betraege zu Fragen der Ruestung und Bekleidung in Persien zur Achaemenidenzeit*.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시대 갑옷과 복식에 관한 물음에 대한 세 가지 소고. *Iranica Antiqua Vol. XXIX*, p.134.
- 23) Tilia, Ann Britt (1972).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IsMeo-Rome. Fig. 3.
- 24) v. Gall, H. (1974). Op. cit., p.157; Henkelman, W. (1995-1996). Op. cit., p.276.
- 25) v. Gall, H. Ibid., p.146; v. Gall, H. (1972). Op. cit., p.268; Henkelman, W. Ibid., p.281.
- 26) v. Gall, H. Ibid; Henkelman, W. Ibid.
- 27) v. Gall, H. (1972). Op. cit., p.268.
- 28) Hinz, W. (1969). Op. cit., p.76.
- 29) Koch, H. (1992). Op. cit., Abb.199; v. Gall, H. (1974). Op. cit., Taf.34-1.
- 30)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Herodot)는 페르시아 종족의 하나인 키시어(Kissier)들이 썼던 머리쓰개를 미트라 (Mitra)라고 명명했는데 이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Hinz, W. (1969). Op. cit., p.76; v. Gall, H. (1972). Op. cit., p.265; RE Suppl.(Supplementbaende) 14 (1974). Tiara, p.795.
- 31) v. Gall, H. Ibid., p.266, p.269, p.270.
- 32) 폰 갈, 후베르투스 (v. Gall, Hubertus)도 이 둘의 머리쓰개가 실제로 서로 다른 형태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v. Gall, H. Ibid., p.268.).
- 33) Gombrich, E. H. (1997). Op. cit.
- 34) v. Gall, H. (1972). Op. cit., p.267, p.269.
- 35) Ghirshman, R. (1964). *Iran*. Verlag C. H. Beck. Muenchen, Abb. <그림242>.
- 36) Hinz, W. (1969). Op. cit., p.78; RE Suppl. 14 (1974). s. v. Tiara, p.795.
- 37) Hinz, W. Ibid., p.265, p.270.
- 38) v. Gall, H. (1972). Op. cit., p.264, p.269.
- 39) Hinz, W. (1969). Op. cit., p.265, p.270.
- 40) Ibid., p.265.
- 41) Herzfeld, E. (1941). *Iran in the Ancient East*. Berlin, p.255, p.486, Taf. 64; Ghirshman, R. (1964). Op. cit., Taf. 235; v. Gall, H. (1972). Op. cit., p.270.
- 42) Hinz, W. (1969). Op. cit., p.76.
- 43) 부셰르(Boucher, F.)는 그의 저서 "20,000 Years of Fashion"(Boucher, F. (1987).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New York, p.64.)에서 페르시아 근위병의 머리쓰개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 모양을 한 수사(Susa)의 근위병의 사진(p.64, <그림85>) <그림참고문헌43-1>(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있음)을 소개하며 이들의 머리쓰개를 둥근 모자의 일종 일 것(a sort of round cap)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부셰르는 꼬인 머리띠 부분을 둥근 모자의 테두리로 생각하였고 머리 윗부분을 둥근 모자로 생각 한듯하다. 아마도 그의 가정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색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 머리띠가 꼬인 머리띠라면 머리띠 위와 아래 머리 부분의 색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부셰르가 제시한 그림에서는 머리띠 윗 부분이 머리띠 아래의 머리색과는 다른 색으로 되어있어 이를 모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저명학자 로만 기르쉬만이 제시한 그림은 같은 그림이지만 색이 약간 다르다. 기르쉬만은 같은 복장을 한 두 근위병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Ghirshman, R. (1964). *Iran, Protoiranier, Meder, Achaemeniden*, Verlag C. H. Beck Muenchen, Muenchen, <그림190>) <그림참고문헌43-2> 근위병들의 머리 부분에서 한 병사의 머리 부분은 머리띠를 제외한 위 아래 부분이 같은 색이나 또 다른 병사의 머리 부분은 머리띠 윗부분이 색이 벗겨져 머리 띠 아래 부분과는 색이 다르다. 그래서 부셰르는 색이 벗겨진 머리띠 윗부분을 모자로 본 것 같다. 그런데 이 그림은 워낙 오래된 그림

이러서 색이 벗겨지는 현상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페르제폴리스 아파다나 계단에 같은 복장과 머리쓰개를 착용하고 묘사되어 있는 페르시아 근위병들의 부조 상<그림12,12-1>에서는 머리띠 윗 부분에 머릿결 형태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이 머리쓰개가 부세르의 가정대로 둥근 모자라면 머릿결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아야한다. 아마도 부세르는 이 부분을 간과하여 이 머리쓰개를 모자로 본 것 같다. 그리고 부세르의 이 책은 New York에서 1987년 발간되긴 하였지만 원래 1965년에 파리에서 발간된 것을 번역한 것이기에 그때까지 연구된 것을 토대로 그의 견해를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1965년 이후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 대한 연구는 특히 독일 고고학자들의 실제 답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그들의 연구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머리쓰개는 위에 언급한 로만 기르쉬만이나 발더 힌츠(Hinz, W.), 티리아(Ann Britt Tilia), 페터 칼마이어(Calmeyer, P.), 후베르투스 폰 갈(v. Gall, H.)등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항상 머리쓰개로 다루어졌었고 둥근모자라고는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후에 또 다른 발굴과 심도 높은 연구를 통하여 위의 연구들이 수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 위에 설명한 여러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위의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페르시아의 근위병들의 머리쓰



<그림참고문헌43-1> 수사(Susa)의 페르시아 근위병 부허, p.64. 그림85



<그림참고문헌43-2> 수사(Susa)의 페르시아 근위병. 로만 기르쉬만, p.141. 그림190

개는 꼬인 머리띠라고 생각하며 부세르의 설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4) v. Gall, H. (1972). Op. cit., p.270; Calmeyer, P. (1988).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X. Die elamisch- persische Tracht 고대 이란의 주제의 생성에 대한 연구 10. 엘람과 페르시아의 복식. *AMI Bd. 21*, p.31; Bittner, S. (1985). Op. cit., p.132.
- 45) v. Gall, H. Ibid., p.264, p.270.
- 46) Hinz, W. (1969). Op. cit., p.79; <그림28>; v. Gall, H. Ibid., p.265, Taf. 72-3.
- 47) Calmeyer, P. (1988). Op. cit., p.31, Taf. 12, 14, 16-2, 17.
- 48) Hinz, W. (1969). Op. cit., Taf. 28; v. Gall, H. (1972). Op. cit., p.264, Taf. 72, 3; 후베르투스 폰 갈은 그의 저서 “Persische und medische Staemme” 에서 옆면이 꼬이지 않고 민뿔한 머리띠를 미트라라고 설명하고 있고(v. Gall, H. (1972). Op. cit., p.265.) 발터 힌츠도 아파다나 계단 조공도에 묘사된 엘람인의 꼬이지 않은 머리띠를 미트라라고 명명하였다.(Hinz, W. (1969). Op. cit., p.76, p.79.) 위에서 우리는 둥근고리형의 관을 미트라라고 살펴 보았는데 왜 이들은 형태가 다른 머리쓰개 즉 둥근고리형의 관과 꼬이지 않은 머리띠를 같은 전문용어인 미트라로 설명하고 있을까? 이렇듯 미트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위의 두 연구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미τρα는 머리띠나 관처럼 머리쓰개의 한 형태를 특징짓는 용어가 아니고 머리쓰개의 옆면의 모양의 특징에 따라 명명된 듯 하다 즉 머리띠든지 관이든지 옆면에 아무 무늬가 없어 민뿔하든가 혹은 꼬이지 않고 민뿔한 머리쓰개를 미트라라고 명명한 것 같다.
- 49) Calmeyer, P. (1988). Op. cit., p.27; Walser, G. (1966).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Berlin; Verlag Gebr. Mann, p.72; 장영수 (2003). Op. cit., p.7.
- 50) Hinz, W. (1969). Op. cit., p.63; Thomson, G. (1965). Op. cit., p.126; v. Gall, H. (1972).

- Persepolis*. Berlin; Verlag Gebr. Mann, p.72; 장영수 (2003). Op. cit., p.7.
- 50) Hinz, W. (1969). Op. cit., p.63; Thomson, G. (1965). Op. cit., p.126; v. Gall, H. (1972). Op. cit., p.275; Walser, G. (1980). *Persepolis*, Tuebingen, Ernst Wasmuth, <그림47>; Koch, H. (1993). Op. cit., pp.119-120; Bittner, S. (1985). Op. cit., p.193.
- 51) Koch, H. (1992). Op. cit., p.36, p.97.
- 52) Koch, H. (1993). Op. cit., p.131, p.132; Thomson, G. (1965). Op. cit., p.125.
- 53) Koch, H. Ibid., p.94.
- 54) v. Gall, H. (1972). Op. cit., p.271, p.272.
- 55) Koch, H. (1992). Op. cit., p.94; 이렇게 모자에 입 가리개가 달려있는 모자는 후에 헬레 니즘 시기에 제단에 봉헌하는 부조상에서도 발견 되는데 이는 봉헌할 때 성스러움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때의 입 가리개는 파이티다나(paitidana) 라고 했다 (v. Gall, H. Ibid., p.278.).
- 56) v. Gall, H. Ibid., p.276.
- 57) Ibid., p.276.
- 58) Koch, H. (1993). Op. cit., p.131-132; Thomson, G. (1965). Op. cit., p.125; v. Gall, H. Ibid., p.278.
- 59) Koch, H. Ibid; Thomson, G. (1965). Ibid.